

로뎀나무 숲불

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이 큰 죄를 저, 하느님은 그 곳을 불 살라버리려고 했다. 국부인 아브라함이 이를 알고 하느님께 달려가 그 성안에 착한 사람이 열명 만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간신히 받아냈다. 하지만 천사들이 소돔성 롯의 집에 들렀을 때 그곳 주민들로부터 행패를 당하게 되자 당초대로 두 마을을 불사르게 되었다. 천사들은 롯을 구해주고자 하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치되 도중에 절대로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다.

신은 유향과 불을 퍼부어 두 마을과 그곳 주민을 모두 잿더미로 만들었다. 롯과 두 딸은 그곳을 빠져나갔으나 그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돌아 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고말았다.

구약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신이 인간의 방종과 불경건한 생활을 벌한 본보기로서, 이곳의 재앙을 「화재사례 연구」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이럴할 것이다.

가나안 근처의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는 현재의 사해 남쪽 만(灣)으로서 석유와 암염의 주산지이다.

지진에 의한 지층의 파괴로 대기중에 가연성의 가스와 유황이 많이 분출되었고 이것이 낙뢰에 의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였다. 불길은 석유와 역청에 연소되어 그 지역에 대 화재를 일으켰으며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망하였다.

비옥한 소돔성의 안락한 생활을 잊지못하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라 함은 그와같은 형상의 암염을 두고한 후세 사람들의 원인론적 해석이라고도 한다.

「창세기」로 시작되는 구약 39책과 「요한계시록」으로 마감되는 신약 27책 등 모두 66권으로 된 성경은 일언일구 마다에 깊은 뜻이 담겨있어, 고래로 못 사람에게 정신적 양식이 되어왔다. 성경에는 신의 존재, 인간의 본질,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 우주의 생성과 종말 또는 완성에 관하여서도 기록 되었다. 이 성경 속에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혹은 익화(益火)로 혹은 양화(殃火)로 다루어져 온 불에 관하여 정리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.

성경 속의 불은 앞의 예화에서와 같은 심판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난방, 요리, 군호(軍號)등 여러 형태로 이용 되었다. <표>

<표> 성경에 나타난 불의 용도

용	도	기 사 (記 事)	책
난	방	추운 날 종들이 숲불을 피우고 「베드로」가 함께 썰	요 한 복 음
요	리	「모세」가 이르기를 구울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...	출 애 굵 기
군	호	이스라엘 사람과 북병간에 약속한 봉화(烽火)	사 사 기
번 제 (燔 祭)		「노아」가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제물(祭物)을 태워서 드린 제사	창 세 기
새 련 (製 鍊)		여호와의 말씀이 흙도가니에서 일곱번 제련한 것 같이 순결함	시 편
고	분	절하지 않는자는 규열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	다 니 령

실로 방대한 성경 속에서 위의 인용이 극히 미약한 것임에 틀림이 없고, 또한 바른 옮김이 되었는데도 염려된다. 다만, 「고사(故事)에 얽힌 불이야기」가 주제가 되기를 희망할 뿐이다.

표제(標題)의 「로뎀나무」는 노간주나무(Juniper)를 말하며 그 뿌리로 만든 숲은 불을 오래 간직한다고 한다.

「시편」에 나오는 로뎀나무 숲불은 불씨 보존이 어려운 옛날에 인간생활에 있어 보배로운 것이었음에 틀림없다.

김 동 일 / 위헌관리부